

>>> 기획특집

'05 Issue  
&  
People

Planning special 3

# 우리나라 유기축산 붐을 바라보며...



이성자 대표  
(주)아이앤비

**최** 근 축산업계에 조심스런 바람 하나가 일고 있다. 바로 “유기축산”에 대한 한층 높아진 관심과 노력들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렵지 않겠느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 있지만 그런 반면 일부에서는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식탁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존경스런 생산자가 있다.

사실 아직 최종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축산관련전문가들조차도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무항생제, 친환경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보면 될 것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버섯 샤브샤브 식당을 찾았더니 벽에 붙인 홍

보지에 “유기농 버섯판매”라는 글자가 보였다. 주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저농약 배지로 출수한 버섯을 일컬어 “유기농”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유기농 의식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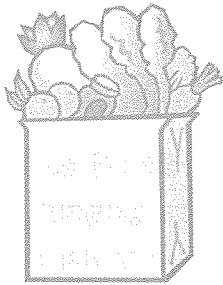
유기축산이 태동을 고하고 있는 이즘에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축산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유기축산이 가야하는 방향과 유기축산의 도덕성을 이야기한다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식량자원산업의 한축으로 자리 잡아야할 유기축산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라는 몇 가지 희망사항을 토로하고자 한다.

2001년 7월 세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유기가축 및 축산물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의거 2001년 7월에 유기축산물 품질관리 요령이 제정된 바 있다. 유기축산의 기본 의미는 CODEX 기준으로 토양과 가축간의 조화로운 관계발전 및 가축의 생리적 욕구를 존중하는 소위 “가축의 복지향상”이라 하겠다. 그동안 오로지 식량자원의 도구로 인식되어 축산물의 생산량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집약사육 및 속성사육 되었던 가축을 이제는 자연 상태 그대의 생리적 현상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도 가축의 복지를 고려한 사양방식으로 키우고, 사료 역시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천연적인 유기사료를 급여하자는 것이다.

유럽 및 미국의 경우는 1996년부터 총 생산량의 약 7% 정도의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배합사료 원료의 95%, 조사료의 많은 부분을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축산에 있어 유기축산은 반드시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가야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식변화에 발맞춰 축산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야한다. 이 새로운 물결이 제대로 한국축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 2세들의 식탁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역할과 더불어 식량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커 나가길 바라는 마음 또한 그지없다.

더불어 지금까지 가난하고 어려웠던 곡물과 채소 위주의 한국식탁을 풍요로 이끌어 주었던 기존의 축산업 또한 당당히 존경을 받는 산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라는 형식의 의식이 잘못하면 극단적인 의미를 도출해 낼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변화와 가속화되는 지구변화 등으로 청정 환경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축산과 유기축산이 조화롭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어 주는 산업으로 아울러 지기를 바란다.

유기축산은 사료공급자, 축산물 생산자, 인증기관 등이 철저한 책임정신과 사명감, 장인정신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순수산업이다. 최근 유기축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상업적 관심과 의미의 확대 또는 변질이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유기축산은 어떤 산업의 경제성으로 블루오션(BLUE OCEAN)이나 레드오션(RED OCEAN)이라는 시장원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순수 식량산업으로 인정되고 발전되어야 진정한 유기축산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의 유기축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려면 필수적인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유통"이다. 가장 유기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이 최종소비자들에게 찾아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정적인 유통업체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다 폭넓은 관계 개선에 유통유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생산과 유통에 상존하는 지나친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이 현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하더라도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하면 양쪽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통 시스템이 보다 경쟁력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면, 보다 폭넓은 유기축산물이 소비자들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급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유기축산의 확산에 원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기곡물과 건초가 지극히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비록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지라도 철저한 유기의식으로 유기축산물 생산에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유기적인 사료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공급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한국축산업에 가능성과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달성해야 할 숙업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쪼록 유기축산이 2006년에는 환경 고민 많은 우리 축산업에 활기찬 희망과 신선한 개혁의 동력이 되길 바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축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자리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2006년을 기대해 본다. ㉟